



스리랑카

최근 격화된 내전 더 악화되지는 않을 듯

금년 4월부터 내전 다시 격화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약 1,000여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135,000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내전 당사자인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LTTE)¹⁾은 이 내전이 자신들의 민족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인도주의적 투쟁이라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스리랑카의 정국은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최근 교전의 원인은 스리랑카 동부 지방의 Trincomalee담 수문을 타밀반군이 폐쇄하면서 싱할리족 1,000여 가구의 식수가 끊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Kilinochochi와 Mulaitivu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였다. 한편, 2006년 8월 정부군 주둔지역인 Jaffna와 Muhamalai 지역을 탈환하려는

반군의 대공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하였고, 이 교전은 2002년 노르웨이 중재로 양측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최악의 교전으로 기록되었다.

스리랑카 내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유혈 분쟁으로,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민족 싱할리 족(불교)과 전인구의 17%인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소수민족 타밀족(힌두교)간에 1983년부터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65,000명에 이르는 사상자와 심각한 경제난을 유발하였다. 2002년 2월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04년 대통령선거 이후 타밀반군의 고위 정치인, 군부 인사 등 대한 테러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월 발생한 카디르가마르(Lakshman Kadirgamar) 외무장관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과 이에 맞선 정부군의 보복공격으로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가 어두워지고 있다.

1) 1983년 출범하여 스리랑카로부터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조직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를 의미함.

2006년 6월 평화협상이 시도되었으나 타밀반군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6년 9월 15일 유럽연합은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은 조건 없이 평화협상에 복귀할 의향을 밝혔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스리랑카 정부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타밀반군과의 평화협상 개최를 부인한 상황이다.

내전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악화되고 있어

스리랑카 경제는 2002년 2월 타밀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이후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쓰나미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5.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05년에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수출 호조 등으로 2004년보다 0.6% 포인트 증가한 6%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8%에 이를 것을 예상되는데, 특히 항만, 통신, 무역, 금융 등 서비스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와 합의한 정책목표

를 근거로 GDP 대비 재정수지²⁾ 적자 수준을 2005년 7.6%에서 2008년까지 4.4%로 축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쓰나미 피해로 주요 채권국들이 원리금 상환을 1년 연기한 유예조치가 종료되었고, 타밀반군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8년까지 정책목표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원조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대금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월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폐지되면서 스리랑카의 섬유수출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6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증진을 위해 2000년 인도, 2005년 2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고,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표〉

주요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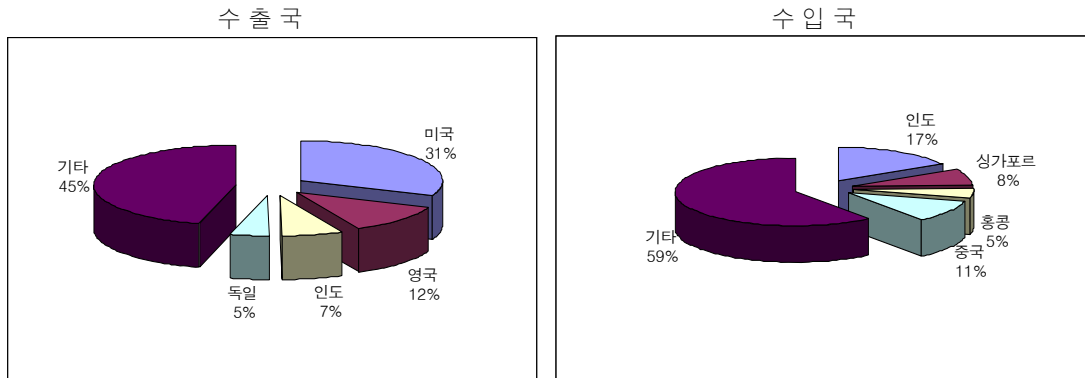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f
경 제 성 장 률	6.0	5.4	6.0	6.8
재 정 수 지 / G D P	-7.8	-7.7	-7.3	-8.5
경 상 수 지 / G D P	-0.6	-3.4	-3.1	-4.2

자료: www.viewswire.com 2006. 8.

2)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자금과 민영화 수입제외.

〈그림〉 주요 수출입국 현황



자료: www.viewswire.com, 2006. 8.

등과 지난 1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서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³⁾에 서명하면서 교역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스리랑카의 세 번째 주요 수출국이자 첫 번째 수입국인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SAFTA 체결은 스리랑카 경제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전상황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2002년 정부와 타밀반군 간 체결된 휴전 협정이 사실상 깨어진 상황에서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잇따른 교전으로 관광산업의 위축과 외국인투자 감소가 전망된다. 그러나 섬유수출 호조와 국외 노동자의 송금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조세제도 개선으로 재정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6% 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 스리랑카 정국은 정부와 타밀반군 양측간 무력 충돌과 테러가 빈번해질 것이나 스리랑카 정국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스리랑카 정부가 지속적인 반군 소탕작전을 벌일 여력이 없고, 타밀반군 또한 내전을 지속시킬 명분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2004년 말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복구작업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조를 제외할 경우 올해 8.7%의 재정적자가 추정되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타밀반군 역시 쓰나미의 영향으로 해군력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입었고, 유럽연합 및 미국⁵⁾이 스리랑카 교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2005년 8월 스리랑카 외무장관 피살사건의 배후로 타밀반군이 지목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 현 규】

3) 역내 인구는 14억 명(전 세계 인구의 1/4), 역내 GDP규모는 8,700억 달러임.
 4)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쓰나미 복구사업에 5~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5) 1997년 미국 정부는 타밀반군을 테러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영국, 호주 등도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였음.